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19년 8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hanmail.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0
- 전화번호 : 02-880-7726

이 인 재 (서울교육대학교, 본회 부회장)

필자가 연구윤리(Research Ethics)라는 응용·실천윤리의 분야에 뛰어들어 기초 연구와 국가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해 오고 있는지도 벌써 12년이 흐르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 공동체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와 함께 진전이 있었으며 그러한 흐름에서 미진하지만 나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계는 연구윤리(연구진실성) 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했을 만큼 연구윤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이나 학술단체는 물론이고 고위 공직자 청문회나 언론에서도 데이터 조작(위조와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와 관련하여 시시비비를 거론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는 그만큼 연구자와 시민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역설적이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연구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 연구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소위 Hwang's Scandal로 알려진 2005년 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황우석 사건 이후 2007년 2월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대학이나 학회에서는 자체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책임은 무엇이며, 연구자가 해서는 안되는 연구부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윤리 시스템은 대학이나 학회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건강한 연구윤리 문화 정립을 위해 대학이나 학회에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필자가 보기에 여전히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본다. 특히 도덕교육의 이론 및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를 해오고 있는 우리 학회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도 타 학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시급히 더 노력해야할 점을 다음과 같이 조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회 연구윤리 규정, 그 중에서도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에 관한 내용을 최근의 연구윤리 동향에 맞춰 투고자의 출판윤리 인식과 실천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디에도 투고, 출판되

지 않은 original 논문이어야 하며, 만일 투고 논문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일부 또는 상당부분이 포함될 경우, 투고 논문과 함께 그에 대한 자료를 정직하게 편집위원회에 알려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판윤리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표절과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인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누가 저자가 될 수 있고, acknowledgment로서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할 기여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투고할 때 교신저자로부터 저자의 역할과 순서에 대해 동의하고, 투고 논문 전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저자 서명서(author statement)을 받는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차학술대회나 월례발표 때 지속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회의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editorials 또는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 명의로 간단하게나마 회원들이 알아야 할 연구윤리 이슈 리포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학회에서도 앞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생겨 이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증을 위하여 학회 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편집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흔히들 연구윤리는 개별 연구자의 인식 제고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구윤리의 확립은 오로지 연구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필자의 다년간 경험에서 보면, 의외로 연구자들 중에는 의도적이지 않지만 연구윤리 쟁점에 대해 무관심하고 잘 몰라 연구부적절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나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를 하는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이 혹 실수나 무지로 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강한 연구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학회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지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출판윤리의 정책과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틈나는대로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방해하는 구속물이 아니라 연구자가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직한 친구, 즉 “연구의 GPS”라고 확신한다. 우리 학회는 바로 그 구성원의 연구 GPS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II

학회 동정

1. 연차학술대회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교육대학교 실과관 온샘홀과 교육문화관 107호, 108호, 109호에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미래 세대의 요구와 도덕·윤리와 교육”이라는 대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약 250여명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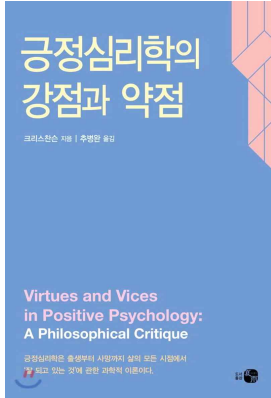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저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2019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학회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Ⅲ

회원 동정

1. 출간 안내



- 본 학회의 고문이신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추병완 교수님께서 크리스찬 크리스찬슨의 책을 번역하신 『긍정심리학의 강점과 약점』이 6월 하순 하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2. 취임 안내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윤건선 선생님께서 2019년도 3월 1일자로 인천시에 있는 인주중학교 교장으로 취임.
- 신원동 선생님께서 2019년도 3월 1일자로 안동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
- 목포대학교 윤리교육과 추정완 교수님께서 2019년도 8월 26일자로 춘천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
- 김하연 선생님께서 2019년도 8월 26일자로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
- 김도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께서 2019년도 9월 2일자로 창덕여고 교감으로 부임.
- 오석종 풍납중 교장 선생님께서 2019년도 8월 31일자로 정년 퇴임.
- 김일환 교육부 장학관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이직.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 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 10만원 / 평생회원 50만원
- ※ 납부 계좌 : 국민, 713701-01-458110, 예금주 : 윤건영(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봉천중 홍길동

납부 명단

- 특별회비: 윤건영 회장(100만), 박동준 고문(100만), 박병기 고문(20만), 심한식 부회장(15만), 오석종 부회장(50만), 이경희 부회장(10만), 이영문 감사(70만),
- 연회비(이사 및 임원): 김근호(청주교대), 김남준(충북대), 김상돈(경성대), 김병연(양재고), 김형렬(서울대), 김혜진(인천대), 김홍수(부산대), 박균열(경상대), 박찬석(공주교대), 박형빈(서울교대), 손경원(서울대), 윤건선(인주중), 이영문(춘천교대), 이인태(광주도곡초), 장동익(공주교대), 장유정(가천대), 정창우(서울대), 조수경(부산대), 차승주(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추병완(춘천교대), 추정완(춘천교대)
- 연회비(일반 회원): 강구섭(전남대), 고미숙(한남대), 김민수(동서울대), 김선주(성신여대), 김상엽(김해분성고), 김완수(이리부송초), 김은수(가원초), 김재영(충북대), 김하민(영도초), 박찬영(진주교대), 신원동(안동대), 신종섭(군포고), 신희정(창원중앙고), 서미라(엄사중), 성현영(경상대), 송애리(조지아대), 양해성(서울대), 엄상현(중부대), 오유진(서울대), 이두연(서울대), 이병기(경기창조고), 이봉기(평화문제연구소), 이윤주(솔밭중), 이청호(세종대), 이한진(한결초), 이혜진(망포중), 이화연(서울대), 정진리(서울대), 최윤정(천마초), 한상엽(김해분성고), 황성규(보문고), 황종환(한남대)
- 평생회원: 김상범(평가원), 김연숙(충북대), 박균열(경상대), 박동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병기(교원대), 서은숙(동국대), 이경희(성신여대), 이인정(통일연구원), 정탁준(전남대), 최형찬(전북대)
- 기관회원 :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 19. 9. 11 기준

※ 회비납부 협조

회원 여러분께서 내신 회비는 학회 운영의 밑거름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충실한 학회 운영을 꾸릴 수 있으며, 회원분의 회비 납부도 학회의 실적에 포함되므로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회장님의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투고 안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65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10월 31일(목)까지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